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on Teaching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중소도시 I시 유아교육과 재학생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총 168명이다. 연구 검사도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의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었다.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교직윤리 전체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공감적 관심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고,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와 관련된 공감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e service teacher's empathic ability on teaching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The subjects were 168 pre-service teacher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a micropolitan city. Questionnaires, which required self-reporting by pre service teacher, were used to investigate teacher's empathic ability, teaching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stepwise-regression analysis.

From the major study findings, first, pre-service teacher's empathic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Pre-service teacher's "take perspective", "imagine" of the cognitive empathic ability's sub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thics. Especially, empathic interes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aching ethics. Cognitive empathy ability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with ethics for early child. Emotional empathy showed the highest relationship with ethics in society.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ethics were influenced by taking perspective, imagining, and empathic atten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to incorporate perspectives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pre - 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thics and child abuse reporting.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mpathic Ability, Teacher's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Sun Ma(Wonkwang Health Science Univ.)

email: jisunsky@wu.ac.kr

Received June 3, 2019

Revised July 4,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하루의 대부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아교사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별유아의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해 줄 수 있는 공감능력은 유아와 생활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의 하나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연대에 필수적이다. 특히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아교사에게는 타인과 협력, 의사소통, 협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1]. 또한 유아들과 생활하면서 발휘되는 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2].

유아교사는 자신의 의사표현에 제한성이 있는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업으로서 유아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3]. 이러한 이유들로 NAEYC는 유아교사는 유아, 가정, 동료교사, 지역사회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4]고 보았으며 매일의 교육 및 책임감 있는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교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5]. NAEYC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윤리를 위한 강령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유치원교사 헌장, 강령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윤리강령을 만들어 교직윤리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반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윤리 교과목의 운영이 필수는 아니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직윤리는 교사로서 책무 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개념이며, 도덕성이나 도덕적 가치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교직윤리가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라면 본다면 도덕적인 기준이 외현적인 행동으로 발현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기 수월한 직업인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012년에는 신고의무자 군 확대가 강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등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고의무제도는 법적으로 영유아와 주로 함께 하는 전문가들이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하

도록 하는 것으로 피학대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교사는 영유아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고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나누기 때문에 학대 징후 발견이 유리한 직업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이 신고의무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학대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영유아를 돕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6].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예비 및 현직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개인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7],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관련변인 관계분석 [8, 9] 및 공감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10]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관련 연구는 교직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개발[1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분석[12], 교직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13]과 그 외 교직윤리가 교사나 유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그러나 교직윤리를 형성해야 할 시기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교육분야에서 교사를 비롯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 및 신고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5], 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신고의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6] 교사가 되기 전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교직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

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소도시인 I시의 A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1학년은 전공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2,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2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의 답변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68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유아교사는 2학년 83명(49.4%)이며, 3학년 85명(50.6%)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9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1997)가 번역하고 이상순(2008)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7,18,19].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인식하고 동일시하는 능력의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의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되었다. 인지적 공감 하위영역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역할을 취해 보는 경향성의 '관점취하기' 7문항과 상상 속에서 책이나 영화, 연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향성의 '상상하기'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공감의 하위영역은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동정심과 따뜻함을 느끼는 경향성의 '공감적 관심' 7문항과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경험하는 경향성의 '개인적 고통'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이다. 검사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체크하도록 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채점하였으며 부정의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전체는 Cronbach's α .88, 관점취하기 Cronbach's α .95 상상하기 Cronbach's α .64, 공감적 관심 Cronbach's α .71, 개인적 고통 Cronbach's α .77로 나타났다.

2.2.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본 연구에서 교직윤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정혜(2012)이 제작하고 광희영(2014)이 수정 보완한 교직윤리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20,21]. 교직윤리 설문지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11문항), 가정에 대한 윤리(9문항), 동료에 대한 윤리(5문항), 사회에 대한 윤리(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교직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가 Cronbach's α .96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에 대한 윤리 Cronbach's α .88, 가정에 대한 윤리 Cronbach's α .95, 동료에 대한 윤리 Cronbach's α .87 사회에 대한 윤리,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2.2.3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eng(2003)이 개발하고 Fraser과 동료들(2010)이 사용한 아동학대 사례 신고를 김수정(201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는 7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2, 23, 24]. 본 도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상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신체, 정서, 성, 방임) 총 8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겠는지에 대하여 체크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신고의도 신뢰도 전체는 Cronbach's α .71 이었으며, 각 하위영역에서 신체학대 신고의도는 Cronbach's α .75, 정서학대 신고의도는 Cronbach's α .85, 방임 신고의도는 Cronbach's α .82, 성학대 신고의도는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났다.

2.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공감능력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팽창계수(VIF), Durbin-Watson값을 산출하였다. 변량팽창계수(VIF)는 1.000~1.242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818과 2.017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 2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접하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신고의도와연관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435, p<.01$).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444, p<.01$) 관점취하기($r=.378, p<.01$), 상상하기($r=.270, p<.01$)와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r=.284, p<.01$)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적 관심($r=.284, p<.01$)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개인적 관심($r=.064, p>.01$)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r=.447, p<.01$),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정적인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r=.291, p<.01$).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는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났($r=.247, p<.01$).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r=.280, p<.01$) 특히, 관점취하기($r=.294, p<.01$)와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r=-.017, p>.01$)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은 아동학

대 신고의도 중 성학대 신고의도($r=.231, p<.01$)와 방임 신고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적 공감은 방임 신고의도만 정적상관이 나타났($r=.192, p<.01$).

즉,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는 관계가 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가 관계가 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 상상하기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능력은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으며, 하위영역인 공감적 관심과는 관계가 있었지만 개인적 관심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교직윤리 하위영역인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으며,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관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는 관계가 있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는 관계가 있으며,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와 관계가 나타났지만, 정서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 중 성 학대 신고의도와 방임 신고의도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은 방임 신고의도에서만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

Table 1.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Teaching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N=168)

	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Total	
	Take perspective	Imagine	Total	Empathic interest	Personal interest	Total		
①	Ethics for the child	.379**	.278**	.447**	.330**	.064	.279**	.433**
	Ethics for the family	.327**	.241**	.391**	.289**	.071	.255**	.387**
	Ethics for colleagues	.338**	.240**	.399**	.302**	.043	.245**	.386**
	Ethics for society	.382**	.243**	.427**	.352**	.057	.291**	.430**
	Total	.378**	.270**	.444**	.336**	.064	.284**	.435**
②	Physical abuse	.245**	.063	.214**	.116	-.121	.003	.150
	Emotional abuse	.219**	.058	.179*	.077	.079	.108	.168*
	Neglect	.194*	.127	.231**	.270**	-.002	.192*	.245**
	Sexual abuse	.226**	.101	.231**	.142	-.015	.093	.197*
	Total	.294**	.112	.280**	.195*	-.017	.129	.247**

** $p<.01$, * $p<.05$

①Teacher Ethics ②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치는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15.7%로 가장 높은 영향력($F=30.963, p<.001$)을 지니고, 상상하기는 4.5%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총 20.2%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1.372, p<.001$). 공감적 관심은 1.8%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총 22.0%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6.121, p<.001$).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인지적 관점인 관점취하기가 9.6%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14, p<.001$).

Table 2.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on Teaching Ethics,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N=16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SE	R ²	ads R ²	F
Teacher Ethics	(constant)	94.788		7.677			
	Take perspective	1.558	.403	.280	.162	.157	30.963***
	(constant)	77.854		9.185			
	Take Imagine	1.441	.372	.275	.212	.202	21.372***
	Imagine	.771	.225	.244			
	(constant)	68.784		10.010			
	Take perspective	1.196	.309	.295	.234	.220	16.121***
	Imagine	.668	.195	.246			
	Empathic interest	.715	.167	.332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Take perspective	25.954	1.994		.102	.096
Empathic interest		.308	.073	.319			

*** $p<.001$

즉,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인지적 관점인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

고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었다.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교직윤리 전체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공감적 관심이 관계가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은 영유아에 대한 윤리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고, 정서적 공감은 사회에 대한 윤리와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공감하게 될 때 도덕적 행위나 판단이 촉발 될 수 있다는 입장을[25]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이 도덕성 발달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9, 26] 대한 실증적인 검증자료를 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전체는 관계가 있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와 관계가 나타났지만, 정서적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은 아동학대 신고의도 중 성 학대 신고의도와 방임 신고의도와 가장 높은 관계가 나타났고, 정서적 공감은 방임 신고의도에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감정이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상력, 추리력 등이 동원되는 것으로[27]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감정이나 동기를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관찰하게 되면 아동의 입장이 되어 높은 신고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인 관점취하기[28]는 자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인지적 공감능력, 특히 관점취하기가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허구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그 속에 자신의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인 '상상하기'는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교사의 아동학대신고의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배제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그 다음으로 상상하기가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공감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는 인지적 관점인 관점취하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감능력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는 인지적 관점에서 타인을 상대

방의 경험이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내적인 경험을 상상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인식하고[28]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로서 공감능력이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적절한 경험을 제공할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29]는 연구에 기초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시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양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공감능력이 출현하는 상황이나 유형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요소를 포함시키고 공감능력 증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교직윤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E. Y. Lee, Meaning of Empathy and Pedagogical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1 No.1, pp. 5-27, 2015.
DOI: <http://dx.doi.org/10.24159/joec.2015.21.1.5>
- [2] S. K. Wee, E. H. Park, "Exploration of related variables to teacher strategy and child strategy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bout play rules in kindergart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6 No.6, pp.1169-1183, 2007.
DOI: <https://doi.org/10.5934/kjhe.2007.16.6.1169>
- [3] Clark, 1995 Clark, C. (1995). *Thoughtful teaching*. NY: Teachers College Press.
- [4] Baptiste, N., & Reyes, L. *Understanding ethics in early care and education*. NY: Pearson. 2007.
- [5] Feeney, S., & Freeman, N. K. *Ethics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or: using the NAEYC cod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W, Washington, DC. 1999.
- [6] E. A. Choi,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Empathy and Ethical Perception on the Personality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 pp. 821-846, 2016.
- [7] N. S. Her,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53, pp. 209-230. 2013.
- [8] S. K. Woo, Y. H. Seo,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1, pp.367-384, 2016.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1-1-15>
- [9] J. S. Park, "The Study on Variables which Affected Empathy and Happi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1, pp.97-118. 2015.
- [10] S. J. Kim., & Y. R. Cha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dult Attachment on Teacher Efficacy and Empathy Ab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9, No5, pp.1441-1455, 2018.
DOI: <https://doi.org/10.22143/hss21.9.5.102>
- [11] H. S. Cho, "Developing Educational Model for Facilitating Early Childhood Teachers' Ethical Percep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16, No.4, pp. 373-394, 2012.
- [12] J. H. Kim,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ethical sense of teacher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 Master's Thesis from Chung-Ang University. 2015.
- [13] K. A. Yuh.,& I. M. Kim,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n the Professional Ethics Percep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31, pp.283-303, 2013.
- [14] M. R. Lee, & S. O. Hong, "Teaching ethic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development and effect of education program based on PBL",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1, pp. 479-506,

2018.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3-1-19>
- [15] Y. J. Cho, H. R. Shin, "A Study on Report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44, pp.213-237. 2013.
- [16] S. Y. Park, I. J. Cho, "A Study on Teache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t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5 No.2, pp.1-19. 2019.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9.15.02.001>
- [17]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No.10, pp.85. 1980.
- [18] S. H.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unumsa. 1997.
- [19] S. S. Lee,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s' Disciplinary Typ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eachers' Sympathy Abilities, and Students' Trust in Teachers. Master's Thesis from Kyunghee University. 2008.
- [20] , G. H. Yang, An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teaching ethics on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from Konkuk University. 2012.
- [21] H. Y. Gwak, A study of Preschool Teachers' Awareness and Practice of the Educational Ethics a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ing Efficacy and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from Kyungnam University. 2014
- [22] Feng, J. Y.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Buffalo, America. 2003.
- [23] Fraser, J. A., Mathews, B., Walsh, K., Chen, L., Dunne, M.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cognition and Reporting by Nurses: A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7, No2, 146-153. 2010.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9.05.015>
- [24] S. J. Kim,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on child abuse.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Thesis. 2012.
- [25] H. J. Shin, "A Study on the Plan of Utilizing Compassion to Prevent School Violence",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 No.44, pp. 215-240, 2014.
DOI: <http://dx.doi.org/10.17282/ethics.2014.44.215>
- [26] Hoffman, M. L.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27] M. Y. Lee, The Effect of Teacher's Sympathetic Ability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Master's Thesis from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 [28] Kohut. H.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analysi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 of observation and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Vol.7, No.3, pp. 459-483, 1959.
DOI: <https://doi.org/10.1177/000306515900700304>
- [29] H. J. Kim., " Exploring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n empathy",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2 No.4, pp. 167-195, 2017.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7.12.4.007>

마 지 순(Ji-Sun Ma)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관심분야>

교사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인성교육